

2018 Korea Law Forum

개최 성과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 연구의 활성화와 수요 진작(振作)을 목표로 2012년부터 UC 버클리로스쿨, 하와이로스쿨 등 유수의 한국법 연구 기관들과 Korea Law Forum 을 개최해 왔다. K-Law 포럼은 향후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 연구 네트워크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한국법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고취시키고 폭넓은 한국법 연구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실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은 2018년 8월 28일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Korea Law Forum(이하, 'K-Law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K-Law 포럼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in Peacemaking in Asia)”라는 대주제 아래,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콜롬비아대학교 한국법연구소(Center for Korean Legal Studies)와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 등의 후원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전문 패널 20여 명이 참석하였고, 100여 명이 넘는 청중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2018 K-Law 포럼의 부제는 “한반도 평화과정: 법, 외교, 그리고 지정학적 논의(The Korean Peace Process: Law, Diplomacy and Geopolitics)”로 한반도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학술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익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행사의 촉사는 조태열 現 UN대사가, 기조발제는 찰스 카트만 前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맡았다.

카트만 前 특사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역사적으로 통찰하면서 국제사회가 평화의 과정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은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거나 비핵화 논의에 전착(穿鑿)하는 등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략에서 과감히 벗어나 북한 스스로 평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진 제1세션은 “한반도 분단의 종식: 남북관계 정상화 과정에서의 법(Ending the Division: Law in the Inter-Korean Normalization Process)”을 주제로 열렸다. 최유경 부연구위원은(한국법제연구원) 홍성필 교수(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법의 지배와 한반도 통일(Rule of Law and the Korean Reunification)”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 부연구위원은 “한반도 통일은 전체적인 ‘과정(process)’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확산의 관점 및 ‘전환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헌법적·법률적 제도 설계가 기본권의 보장의 확대부터 정치적·사법적 제도



구축과 법화(法化)의 각 단계별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한편, 백태웅 소장(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과 노정호 소장(콜롬비아 한국법연구소)은 각각 “남북합의의 법적 성격과 효력(The Legal Nature and Force of Inter-Korean Agreements)”, “다면적 차원에서의 협약: 남북교류를 위한 법적인 틀(Contracts at All Levels: The Legal Framework for Inter-Korean Exchanges)”을 주제로 남북합의의 법적 성격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제2세션은 “북한 핵 위협 종결: 비핵화 절차 내에서의 법(Ending the Nuclear Threat)”이라는 제목 아래,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번과 미국 사회과학연구회(SSRC) 동북아 협력 안보국장 레온 시갈 등이 발표를 맡아 진행됐다. 이들은 종전(終戰)과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제재에 따른 남북협력 프로젝트의 한계(Sanction-Based Limits on Inter-Korean Projects)”와 “법,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화해(Law, Denuclearization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제3세션은 “종전 선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법(Ending the Korean War: Law in Peacemaking Process)”을 주제로 소냐 바흐만탐장(UN 정치국)이 “분쟁과 예방: UNDPA의 한반도 지원(Conflict, Prevention: UNDPA’s Support on the Korean Peninsula)”을 전략적으로 다루었다. 각 세션의 토론은 이영재 교수(뉴욕 포담로스쿨), 강명구 교수(바루크 뉴욕시립대학교) 및 최영수 변호사 등이 맡아 심도 있는 토론의 토대를 마련했다. 마지막 제4세션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발표자와 토론자는 물론, 청중과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해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의 장(場)을 이루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K-Law 포럼은 한국법 연구 활성화 및 수요 진작(振作)을 목표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K-Law 포럼은 그 동안 UC 버클리로스쿨과 하와이로스쿨 등지에서 열렸으며, 폭넓은 한국법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맺으며 한국의 최신 법적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향후 K-Law 포럼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으로 한국법 연구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